

여수시 올해 상수도 인프라 조성 박차

둔덕·학용정수장 604억 투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맑은 물 공급 위해 노후관 교체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첨단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준 높은 상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정주여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단에 따르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상하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단 소속 상수도과는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현재 67%인 유수율 제고(80% 이상)를 위한 노후관 교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과 돌산지역 수돗물 공급 안정화 사업에도 매진한다.

하수도과는 돌산 우두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선소지역 주변 약취개선 하수도 정비사업과 국동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화양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둔덕정수장과 학용정수장에 604억원(국비 3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환경부 국고 교부 결정 사업 선정과 함께 막여과 공법선정, 기본 실시설계 준공 등을 거쳐 올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로써 두 곳의 정수장이 처음 가동될지 수십 년 만에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미래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선다.

올해만 29억원(4단계 사업)을 투입해 미 공급지역인 화양·돌산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읍촌지역 32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한 바 있다.

상수도 관로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민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해수담수화·관정개발·관로개량 등 핵심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역은 남면·화정면·삼산면 등 17개 도서 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더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도 착각 진행한다.

여수시는 국동 남초등학교 일원 등 4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30.1km 교체를 위해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습침수 문제 해결과 약취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또 돌산 우두택지, 국동 롯데마트 일원, 도원사거리 일원 등 상습 침수지역

의 빗물펌프장과 저류지 관로 재정비 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한다.

원도심 지역 서교·고소·미평·신월동 등에 설치된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을 위한 예산(23억원)도 확보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했던 지역 대표 유적지인 선소 주변 약취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적지 보존과 해양오염방지, 약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모두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5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 사업 36억원, 연등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36억원 등 총 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하수도 핵심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이 행복한 정주여건 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차량 주차 연락 알림판 제작 배부

순천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지연 및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주차 연락 알림판(사진)을 제작해 배부한다.

차량 주차 연락 알림판 앞면에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뒷면에는 의무보험 만료일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부주의로 의무보험 기간 경과 등 과태료를 부과 가능성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1500여개 제작해 배포하고 내년부터는 호응도에 따라 제작 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 연락 알림판은 순천시 차량등록민원실, 허가민원과, 교통과에 비치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재민 순천시 교통과장은 "알림판 제작 배부로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흥



보하고 시민의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정부합동평가서 산림분야 우수기관 선정

순천시가 전남도 산림 행정평가 대상 수상에 이어 산림청이 주관한 '2018년 전국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상패와 포상금 650만원을 받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자연휴양림 등 지표와 신규사업 발굴이 다른 지자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 한해 각종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

불방지, 임도, 사방 사업, 병해충 방제와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자연친화적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직일 모두가 산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연계산 프로젝트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서해어업관리단,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배달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8일 목포 지역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 전달된 사랑의 연탄은 12월 중순부터 청사 내 모금함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직접 담아 모금된 성금이다.

이와 함께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목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위문금을 전달하고, 어업지도선

을 통해 낙도지역에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 무술년을 보내면서 지역소외계층에 보람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고,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수EXPO해양공원 전경.

여수EXPO해양공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여수시가 최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여수 EXPO해양공원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엄선하고 있다.

대상지는 관광지 인지도·만족도·방문의

향 등 온라인 설문과 통신사·SNS·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관광객 증가율·검색량 등 관광통계, 전문가 서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다.

여수EXPO해양공원은 2012년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던 박람회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곳이다.

바다와 맞닿은 수변공원을 거닐거나

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기고, 박람회 기간 많은 인기를 얻었던 멀티미디어 쇼 '빅오쇼'도 감상할 수 있다.

67m 높이에서 박람회장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다워, 288종의 희귀종 포함 3만3000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있는 아쿠아플라넷도 있어 체험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여수EXPO해양공원은 올해 한국관광을 빛낸 별에 선정돼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진도 모도·신안 기도 등

낙후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목포해수청, 21억원 투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진)은 진도군 모도와 신안군 기도, 장병도에 국비 21억원을 투입해 시설 낙후로 인한 여객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여객선 접안시설을 보수·보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목포시 외달도와 달리도에 대한 접안시설 정비와 대합실 신축공사를 국비 총 2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영광군 송이도와 신안군 웅곡·대야도·개도, 완도군 울포 5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총 20억원을 투입해 접안시설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166억원을 투입해 전국 34개소 여객선 접안시설을 정비하고, 시설 노후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이 필요한 전국 86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객선 접안시설과 더불어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이모지로 바꾸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